

우리나라 금융소비자의 금융 역량과 금융 웰빙

최 철*

< 요약 >

금융 교육은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이는 금융 소비자의 금융 역량 강화를 통해 바람직한 금융 상품 선택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시장 규율의 확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 역량은 지식, 기술, 태도, 행동의 네 가지 영역에 속한 세부적인 역량 요소들의 조합으로 정의되며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구주의 금융 역량을 평가해 보고 금융 웰빙의 측정 도구에 포함되는 재무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재무 만족도에 대해서는 소득, 순자산, 은퇴 준비 정도와 같은 재무 상황 변수들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특히 기술 영역의 금융 역량은 재무 만족도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재무 상황이 재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지배적이다 보니 남성 가구주 가계와 여성 가구주 가계 간의 재무 상황의 차이가 결국 재무 만족도의 차이로도 이어진다. 평균적으로 가계의 소득, 순자산, 은퇴 준비 정도에 있어서 여성 가구주 가계가 모두 낮기 때문이다. 기술 영역이 재무 만족도의 영향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금융 역량의 여러 영역들 중에서도 실제 가계가 당면하는 금융 의사 결정과 재무 관리를 비롯하여 여러 재무 문제 해결 등에 가장 실용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도에는 재무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인의 영향도 크다. 그럼에도 기술적 영역의 금융 역량이 재무 만족도는 물론 그보다 더 포괄적인 삶의 만족도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금융 교육에서는 이 역량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에 걸맞은

*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부교수, choichul@sookmyung.ac.kr

정도로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 즉 향후 금융 교육의 방향성과 세부적인 방법을 설계하는 데 있어 기술적 역량의 중요성이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역량의 향상은 오랜 기간 주로 실천적인 경험 학습을 통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비재무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금융 웰빙에 대하여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핵심 주제어: 금융소비자, 금융 역량, 금융 이해력, 금융 웰빙, 금융 교육

1. 서론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금융감독원 내에 준 독립 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출범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설립되면서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 감독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사전적 보호와 사후적 보호 간의 균형과 상호 보완,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추구되어 왔다(금융감독원, 2023). 이러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강화는 2012년 OECD가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상위 원칙(High-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이라는 국제 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더욱 체계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이 원칙은 2022년에 수정·보완되었는데 그 네 번째 원칙이 금융 이해력과 인식(financial literacy and awareness)으로서 이는 더 넓은 범위에서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과 금융 이해력 제고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가 위험과 기회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고, 필요한 도움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를 알며, 금융 웰빙(financial well-being)과 원상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행동(behavior), 태도(attitude)를 갖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OECD, 2022).

World Bank(2013)는 금융 역량(financial capability)을 금융소비자의 자원 관리와 금융 서비스를 잘 이해하고 선택하여 활용하는 데 관련되는 지식, 태도, 기술 및 행동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금융 이해력에 대해서는 지식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 이해력도 지식, 기술, 태도 및 행동의 조합으로서 건실한 재무적 의사 결정과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금융 웰빙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Atkinson & Messy, 2012), 이후 OECD의 여러 문헌에서도 이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두 개념이 굳이 구분 없이 사실상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두 용어 간의 차별을 두지 않는 입장이지만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포괄적인 의미로 금융 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따르고자 한다. 한편 금융 웰빙이라는 것은 CFPB(2015)의 정의에 따르면 개인이 현재와 앞으로의 재무적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미래의 재정에 대해서도 안전감을 갖고 즐거운 삶을 위한 선택을 해 나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금융 역량은 이러한 금융 웰빙의 필요조건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한편 금융 웰빙이

금융 행복이라는 개념과 동일시되기도 한다(정운영 외 2인, 2020).

금융 역량이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재무 관리나 재무적 의사 결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금융 웰빙의 실현과 관련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일반 재화나 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보호는 보호론적 기초에서 주권론적 기초로 전환되고 있다(김인숙, 2009). 이와 마찬가지로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도 금융소비자의 주권자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해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시장 규율(market discipline)이기 때문이다. 시장 규율의 핵심은 시장의 자생적 질서 속에서 시장참가자들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최철(2012)은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겠지만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개인 역량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금융 역량 강화가 요구되는 만큼 금융 교육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금융 역량 조사는 초기에 주로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중심으로 지식적인 금융 이해력 측정에 초점을 두었으나(최현자·이지영, 2008; 최현자·조혜진, 2011), 2012년에는 한국은행이 OECD 산하 INFE(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가 개발한 금융 이해력 측정 도구(OECD/INFE, 2011)를 활용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 행동, 태도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 금융 이해력 조사는 2014년에 금융감독원이 실시하였고, 2016년부터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2년마다 공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2022년도 조사 결과(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이해력 점수는 66.5점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식 부문이 75.5점으로 가장 높고, 행동 부문은 65.8점, 태도 부문은 52.4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OECD의 측정 도구는 금융 이해력 외에도 금융 포용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는(OECD/INFE, 2013) 등 주기적으로 개선·보완되고 있으며, 국가 간 비교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2020년에 발표된 자료(OECD/INFE,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융 이해력 총점이나 각 영역별 점수에 있어서 OECD 12개 국가의 평균 수준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금융 역량의 네 가지 영역들 중에서 기술에 대한 측정 항목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외에 재무 상황에 대한 정보와 재무 만족도의 지표가 없어 금융 웰빙의 수준을 추정하거나 금융 역량과 금융 웰빙의 연관성을 파악해 보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금융 역량을 진단하고 아울러 금융 웰빙의 요소라 할 수 있는 재무 상황과 만족도 지표를 이용하여 이들의 관계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들은 각각 금융 웰빙의 객관적, 주관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재무 만족도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개인 재무(personal finance) 분야에서 재무 만족도 또는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조사 대상자가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한정되어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거나 금융 역량의 단편적인 요소 또는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일반적인 가계와 가구주를 대상으로 금융 역량의 네 가지 영역을 모두 고려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실증 분석에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2020년에 실시한 금융 역량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것은 전국 단위로 20대 이상 성인 남녀 각각 1,000명의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 조사한 결과이며, 가계 단위로 주요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하위 표본을 도출하여 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 주요 변수와 연구 방법

2.1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재무 상황 변수

전체 표본($n=2,000$)에서 가구주인 응답자만을 고르면 남성 547명, 여성 195명으로 총 742명의 하위 표본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가구주 여부는 실제 세대주인지보다는 응답자가 해당 가계의 주요 의사 결정의 주체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경우 가구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물론 부부나 가계 구성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의사 결정을 하거나 특히 재무 문제에 있어서는 각자의 분리된 계정을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가계의 주요 의사 결정 주체라 하여 1인만을 상정하고 있다. 이 점은 향후 후속 연구에서 보다 현실적인 가구주 정의를 도입하여 새로운 연구 성과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크게 인구통계학적 특성, 재무 상황, 금융 역량, 만족도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표 2-1>과 같다. 참고로 금융 역량 측정 변수의 세부 문항과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는 신뢰성 지표인 Cronbach's alpha 계수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는 가구주 여부, 성별, 연령대, 교육 수준, 가구원 수, 혼인 상태가 있다. 남녀 각각 1,000명씩의 원시 표본에서 가구주만을 골랐을 때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기록한 것은 분명히 가구주 여부가 성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암시한다. 가구주로서 특히 재무 문제와 관련한

〈표 2-1〉 변수 설명

변수	설명	
인구통계학적 특성 (6)	HH	가구주 여부(0=아니오, 1=예)
	GN	성별(0=남성, 1=여성)
	AG	연령대(2=20대, 3=30대, 4=40대, 5=50대, 6=60대)
	ED	교육 수준(1=고등학교 이하, 2=전문대학, 3=대학교, 4=대학원 이상)
	HS	가구원 수(1~12)
	MS	혼인 상태(1=결혼, 2=미혼, 3=이혼, 4=사별)
재무 상황 (3)	HI	소득(백만 원)
	NW	순자산(백만 원)
	RP	은퇴 준비 정도(0~10점 척도)
금융 역량 (12)	BS	Big 5 테스트 점수(1문항에 2점, 10점 만점)
	FT	금융 거래 자신감(0~10점 척도)
	AS	일상생활에서의 수리 능력(0~10점 척도)
	FD	금융 의사 결정 능력(0~10점 척도)
	MM	돈 관리 능력(0~10점 척도)
	CM	돈의 영향력에 대한 통제 자신감(0~10점 척도)
	EC	과소비 정도(0~10점 척도)
	IP	충동구매 정도(0~10점 척도)
	OF	미래의 돈 문제에 대해 낙관하는 태도(0~10점 척도)
	BM	돈이 부족할 때를 대비한 예산 활동 수준(0~10점 척도)
	SP	월별 지출 계획의 구체성(0~10점 척도)
	FP	재무 설계의 구체성(0~10점 척도)
만족도 (2)	FS	재무 만족도(0~10점 척도)
	LS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0~10점 척도)

가계의 주요 의사 결정 경험을 통해서도 금융 역량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면 이처럼 성별에 따른 가구주 비중의 불균형으로 인해 금융 역량의 성별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재무 상황이나 목표가 달라지기도 하고 가계 구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선형적으로 교육 수준은 금융 역량의 모든 요소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짐작된다. 예컨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금융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해도가 높을 것이며 어느 정도 수리적인 능력과 분석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재무 관리의 기술도 교육 수준과 결코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계 경제의 규모는 커지기 마련이고 따라서 가구주의 의사 결정에도 더 어렵고 복잡한 고려 사항들이 개입될 수 있다. 또한 가계 소득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도 소득 자체의 크기만이 아니라 가구원 수를 고려한

평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원 수의 제공근으로 소득을 나누어 균등화 소득을 산출하고 있다. 혼인 상태는 앞서 성별과 가구주 여부의 관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금융 역량 차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예컨대 이혼이나 사별 후 여성 가구주가 되는 경우에는 종전에 가구주로서의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인해 이와 관련한 금융 역량 요소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가계의 재무 상황을 나타내는 데는 소득과 순자산이 가장 대표적인 변수들이다. 소득은 유량 변수(flow variable)로서 일정 기간 동안 가계에 수입된 금액이며, 순자산은 저장 변수(stock variable)로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가계에 축적되어 있는 자본 또는 순자산을 의미하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다. 보통은 가계의 소득에서 지출되지 않고 유보된 금액이 누적되어 그 운용 수익과 함께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온다. 순자산이야말로 가계가 어떤 목적에 따라서든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재원이며 따라서 가계의 부(wealth)를 나타내는 변수가 된다. 은퇴 준비 정도는 공적 연금, 개인 연금, 또는 기타 노후 보장을 위한 마련된 재원의 충분성에 관한 것으로 10점 척도로 자가 평가한 것이다.

2.2 금융 역량 변수와 요인 분석 등의 연구 방법

금융 역량에 포함된 12개의 변수들은 지식, 기술, 태도, 행동으로 나뉠 수 있는데 사전적으로 역량 요소를 구분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탐색적 요인 분석(explan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각 변수가 어떤 역량 요소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즉 이는 어떤 이론적 가설에 의존하지 않고 주어진 자료의 기초가 되는 공통 구조를 탐색하는 분석 방법이다(Dillon & Goldstein, 1984).

$$x_i = \sum_{j=1}^J \lambda_{ij} f_j + e_i \quad (i = 1, \dots, 12) \quad (1)$$

위 식에서 x_i 는 12개의 금융 역량 변수들 중 i 번째 변수를 의미하며, f_j 는 j 번째 요인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계수인 λ_{ij} 는 요인 적재(factor loading) 값이다. 12개의 금융 역량 변수들은 설문 조사를 통해 자료가 주어진 반면, 요인은 직접 관측되지 않는 것이며 그 개수도 아직 미정이다. 사전적으로 요인의 개수를 정해 두기도 하지만 보통은 요인의 설명력을 반영하는 고유택(eigenvalue)이 1 이상이 되는 요인의 수만큼을 추출하게 된다. 물론 설문 조사를 설계하면서 12개의 금융 역량 변수들 가운데

Big 5 테스트(Lusardi & Mitchell, 2011)의 점수는 당연히 금융 지식에 해당하고, 금융 거래 자신감(FT), 일상생활에서의 수리 능력 (AS), 금융 의사 결정 능력(FD), 돈 관리 능력(MM), 돈의 영향력에 대한 통제 자신감(CM)은 금융 역량의 기술적 영역에 해당하며, 과소비 정도(EC), 충동구매 정도(IP), 미래의 돈 문제에 대해 낙관하는 태도(OF)는 태도의 영역에, 돈이 부족할 때를 대비한 예산 활동 수준(BM), 월별 지출 계획의 구체성(SP), 재무 설계의 구체성(FP)은 행동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요인 분석은 자료의 공통 구조를 알아낼 수 있기도 하지만 많은 수의 변수를 요인으로 묶어 주어진 자료의 차원(dimension)을 줄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예컨대 12개의 금융 역량 변수들을 4개의 영역으로 묶고 그 영역의 점수화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인 점수(factor score)를 추정할 수 있다.

$$\hat{F} = ZR^{-1}A \quad (2)$$

여기서 \hat{F} 는 추정된 요인 점수 행렬이며, Z 는 주어진 자료, 즉 n 개의 표본에 대해 12개의 금융 역량 변수를 측정한 자료 행렬(X)을 표본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standardization)한 자료 행렬이며, R 은 12개 변수의 상관계수 행렬, A 는 요인 적재 행렬이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n 개의 표본에 대해 모든 요인의 점수가 산출된다. 이같이 요인 점수를 산출하여 얻는 이점은 추가적인 분석에 12개의 금융 역량 변수를 사용하는 대신 요인 점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재무 만족도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종속 변수로 하는 회귀 분석에서 다음과 같이 각 영역의 요인 점수가 설명 변수에 포함된다.

$$FS = a_0 + a_1GN + a_2AG + a_3ED + a_4MS + a_5HI + a_6NW + a_7RP + a_8f_1 + a_9f_2 + a_{10}f_3 + a_{11}f_4 + u \quad (3)$$

$$LS = b_0 + b_1GN + b_2AG + b_3ED + b_4MS + b_5FS + b_6f_1 + b_7f_2 + b_8f_3 + b_9f_4 + v \quad (4)$$

위의 (3)식을 통해 재무 만족도에 대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 재무 상황, 금융 역량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4)식을 통해서도 재무 만족도가 다른 설명 변수들과 함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3. 분석 대상 가계와 가구주의 일반적 특성

기술 통계는 분석 대상 자료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해 보기 위한 것인데 우선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1>에 제시되어 있다. 각 변수의 범주별 구성 비중을 보면 대체로 남성과 여성 가구주 간의 차별성이 존재한다. 이는 독립성을 귀무가설로 하는 Pearson 카이제곱(χ^2) 검정 통계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교육 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의 경우 그 분포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교육 수준도 유의 수준이 충분히 크다면(예컨대 10% 유의 수준) 성별 차이가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이는 주로 50대 이상의 높은 연령대에서 성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30대 이하만을 대상으로 하면 10%의 유의 수준에서라도 성별 차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표 3-1>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명, 가구)

변수	남성 가구주(n=547)		여성 가구주(n=195)		검정 통계량	
	도수	비중	도수	비중	χ^2	(P값)
연령대(AG)					30.03	(0.000)
20대	43	7.86	38	19.49		
30대	112	20.48	49	25.13		
40대	159	29.07	50	25.64		
50대	168	30.71	33	16.92		
60대	65	11.88	25	12.82		
교육 수준(ED)					7.05	(0.070)
고등학교 이하	61	11.15	18	9.23		
전문대학	55	10.05	33	16.92		
대학교	346	63.25	119	61.03		
대학원 이상	85	15.54	25	12.82		
가구원 수(HS)					87.95	(0.000)
1인	120	21.94	98	50.26		
2인	75	13.71	41	21.03		
3인	129	23.58	37	18.97		
4인 이상	223	40.77	19	9.74		
혼인 상태(MS)					142.35	(0.000)
기혼	375	68.56	38	19.49		
미혼	146	26.69	126	64.62		
이혼	24	4.39	27	13.85		
사별	2	0.37	4	2.05		

다음은 재무 상황에 대한 비교이다. <표 3-2>에서 소득은 가계의 월 소득을 가구 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것인데 남성 가구주 가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 균등화 이전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남성 가구주 가계와 여성 가구주 가계가 각각 평균적으로 4.7백만 원과 3.2백만 원으로 격차가 더 벌어진다. 순자산의 경우에는 288.1백만 원과 182.3백만 원으로 소득에 비해 성별 격차가 더 크다. 유의 수준 0.1%에서 성별 차이가 없는 것은 은퇴 준비 정도인데 이것도 남성 가구주 가계의 경우 평균적으로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지만 여성 가구주 가계는 보통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순자산의 차이는 소득의 차이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만 소득에서 지출되지 않고 유보된 것이 축적되어 순자산에 기여하므로 지출을 얼마나 통제하느냐, 즉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지와 더불어 유보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가 순자산의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파악해 보고자 하는 금융 역량의 차이도 순자산의 차이라는 결과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무 상황은 재무 만족도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짐작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러한 만족도를 종속 변수로 하는 회귀 분석의 결과로도 밝혀질 것이다.

<표 3-2> 재무 상황

(단위: 백만 원, 포인트)

변수	남성 가구주(n=547)		여성 가구주(n=195)		검정 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P값)
소득(HI)	2.8	1.5	2.4	1.2	3.72	(0.000)
순자산(NW)	288.1	363.0	182.3	272.7	4.24	(0.000)
은퇴 준비 정도(RP)	5.1	2.3	4.5	2.2	2.90	(0.004)

<표 3-3>에서와 같이 금융 역량에 있어서는 금융 지식에 해당하는 Big5 테스트 점수를 제외하고는 유의한 성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의 수준을 5%로 하면 일상생활에서의 수리 능력이나 돈 관리 능력에서도 성별 차이가 나타난다. 세 가지 변수 모두 남성 가구주의 평균 점수가 더 높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기는 하지만 과소비나 충동구매 정도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성 가구주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역시 성별 격차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지만 여성 가구주는 예산 활동 수준, 지출 계획과 재무 설계의 구체성에서 남성 가구주에 비해 다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표 3-3〉 금융 역량

(단위: 포인트)

변수	남성 가구주(n=547)		여성 가구주(n=195)		검정 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P값)
Big 5 테스트 점수(BS)	5.2	2.4	4.3	2.5	4.82	(0.000)
금융 거래 자신감(FT)	6.2	1.9	6.0	1.8	1.83	(0.068)
일상생활 수리 능력(AS)	6.7	1.8	6.3	1.9	2.34	(0.020)
금융 의사 결정 능력(FD)	6.0	1.8	5.8	1.8	1.11	(0.267)
돈 관리 능력(MM)	5.7	1.9	5.3	2.2	2.44	(0.015)
돈의 영향력 통제(CM)	6.0	1.8	5.9	1.7	0.79	(0.427)
과소비 정도(EC)	2.5	2.4	2.8	2.6	-1.23	(0.218)
충동구매 정도(IP)	3.6	2.3	4.0	2.6	-1.92	(0.056)
미래의 돈 문제 낙관(OF)	3.4	2.4	3.2	2.4	1.08	(0.283)
예산 활동 수준(BM)	6.0	2.1	6.3	2.1	-1.78	(0.076)
지출 계획 구체성(SP)	5.4	2.3	5.6	2.6	-0.77	(0.440)
재무 설계 구체성(FP)	6.0	2.0	6.1	1.9	-0.69	(0.492)

〈표 3-4〉에서 재무 만족도는 남성 가구주나 여성 가구주 모두 보통 이하이지만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보통(여성 가구주) 또는 보통을 약간 상회(남성 가구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1%의 유의 수준에서는 두 가지 만족도 모두 성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유의 수준을 1%로 하면 재무 만족도의 경우 성별 차이가 있으며 남성 가구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앞서 재무 상황에서 나타난 유의한 차이와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은 삶의 만족도가 재무 만족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정민·박호준(2023)의 경우 삶의 만족도를 개인의 삶에 대한 기대가 실제 삶에서 충족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며, 웰빙이나 행복은 삶의 만족도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

〈표 3-4〉 재무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단위: 포인트)

변수	남성 가구주(n=547)		여성 가구주(n=195)		검정 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P값)
재무 만족도(FS)	4.6	2.4	4.0	2.3	2.75	(0.006)
삶의 만족도(LS)	5.3	2.2	5.0	2.4	1.64	(0.102)

4. 금융 역량과 금융 웰빙

금융 역량의 정의로부터 지식, 기술, 태도, 행동의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금융 역량 요소들을 분류할 수 있다면 금융 역량 설문 조사 문항들의 측정 결과가 의도된 영역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이는 다시 설문 문항을 설계하는 데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12가지의 금융 역량 측정 문항을 채택하였고 이들은 물론 사전적 정의에 따라 특정 영역의 금융 역량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사전적 정보 없이 주어진 자료의 구조만으로 어떤 영역들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요인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4-1>은 12개 금융 역량 변수들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자료의 구조상 요인은 3개로 도출되었지만 별도의 요인으로 묶이지 않은 Big 5가 다른 변수들과 달리 유일한 지식 영역의 변수인 만큼 나머지 요인에 대한 해석은 자연스럽게 금융 역량의 기술적 영역(요인 1), 태도적 영역(요인 2), 행동적 영역(요인 3)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표 4-1>의 요인 적재 값들을 행렬 형태로 다시 정리하여 나타내면 요인 점수 산출을 위한 (2)식에 포함된 Λ 이 된다.

<표 4-1> 요인 분석 결과

변수	요인 1	요인 2	요인 3	Uniqueness
Big 5 테스트 점수(BS)	0.266	-0.226	0.160	0.853
금융 거래 자신감(FT)	0.750	-0.068	0.070	0.428
일상생활 수리 능력(AS)	0.692	-0.287	0.036	0.438
금융 의사 결정 능력(FD)	0.820	-0.051	0.160	0.299
돈 관리 능력(MM)	0.811	-0.039	0.210	0.296
돈의 영향력 통제(CM)	0.632	-0.049	0.267	0.526
과소비 정도(EC)	-0.165	0.860	0.014	0.234
충동구매 정도(IP)	-0.160	0.799	-0.018	0.336
미래의 돈 문제 낙관(OF)	0.267	0.643	-0.128	0.500
예산 활동 수준(BM)	0.386	-0.202	0.565	0.492
지출 계획 구체성(SP)	0.129	-0.056	0.819	0.309
재무 설계 구체성(FP)	0.137	0.061	0.816	0.312

Method: principal-component factors

Rotation: orthogonal varimax (Kaiser off)

이처럼 12개의 금융 역량 변수가 네 가지 다른 영역으로 나뉠 수 있는 것은 <표 4-2>의 상관계수로부터도 잘 알 수 있다. 즉 같은 영역에 속한 변수들 간에는 비교적 강한 양(positive)의 상관관계를 갖지만 서로 다른 영역의 변수들 간에는 비교적 약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것은 금융 역량의 영역들이 구분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즉 금융 역량이란 다양한 특징적인 요소들의 결합이라는 점이다. 어느 한 영역의 충분성이 다른 영역의 충분성을 수반하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다양한 영역의 역량 요소들을 고르게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특기할 점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금융 역량 변수들 중에서 태도 영역의 변수들은 과소비, 충동구매, 미래의 돈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론에 관한 것이어서 사실상 그 점수가 높은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따라서 태도 영역과 다른 영역의 변수들 간에 음(negative)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도가 강하지는 않으며 태도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들 간에도 약한 음의 상관관계는 나타나고 있다. <표 4-2>를 행렬 형태로 다시 정리하여 나타내면 (2)식의 상관계수 행렬(R)이 된다.

<표 4-2> 금융 역량 변수들의 상관계수

변수	BS	FT	AS	FD	MM	CM	EC	IP	OF	BM	SP	FP
BS	1.000											
FT	0.232	1.000										
AS	0.235	0.553	1.000									
FD	0.200	0.592	0.559	1.000								
MM	0.167	0.513	0.490	0.666	1.000							
CM	0.106	0.387	0.360	0.417	0.494	1.000						
EC	-0.179	-0.094	-0.176	-0.144	-0.161	-0.148	1.000					
IP	-0.137	-0.093	-0.135	-0.094	-0.129	-0.160	0.623	1.000				
OF	-0.086	0.077	-0.047	0.048	0.112	0.156	0.403	0.236	1.000			
BM	0.156	0.285	0.294	0.373	0.453	0.420	-0.227	-0.198	-0.052	1.000		
SP	0.128	0.218	0.190	0.263	0.283	0.217	-0.082	-0.109	0.004	0.391	1.000	
FP	0.192	0.212	0.179	0.270	0.265	0.236	-0.050	-0.032	0.017	0.328	0.494	1

기술 영역의 금융 역량은 금융 거래의 오랜 경험을 통해 숙련되고 체득된 능력이기 에 금융 지식과는 구별되고 따라서 단지 지식만 갖춰졌다고 해서 좋은 금융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금융 거래 자신감은 풍부한 금융 거래 경험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으로서 필요에 적합한 금융상품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에 대한 자기 확신이 반영된 것이어서 기술적인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일상생활

에서의 수리 능력이나 돈을 관리하고 그 영향력을 통제한다는 것도 오랜 경험 속의 숙련이 요구된다. 한편 예산이나 지출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위한 재무 설계를 하는 것은 구체적인 실천 행동이어서 행동적 영역의 요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 3-3〉에서는 금융 역량의 개별 요소별로 성별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영역별로는 어떻게 되는지를 (2)식을 통해 추정된 요인 점수를 토대로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지식의 영역은 요인 분석에서 별도의 요인으로 나누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요인 점수는 표준화된 수치로 도출되므로 지식 영역에 해당하는 단일 요소인 Big 5 테스트 점수도 표준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4개 영역의 표준 점수를 지식(f_1), 기술(f_2), 태도(f_3), 행동(f_4)으로 하여 가구주 성별 금융 역량을 〈표 4-3〉과 같이 도출하였다. 이 결과를 〈표 3-3〉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지식은 표준화를 한 것일 뿐이므로 성별 차이에 관한 검정 통계량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고 나머지 영역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유의 수준 1%에서는 기술 영역에서도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식, 기술, 태도 영역에서는 남성 가구주가 평균적으로 더 우위인 반면, 행동에 있어서는 여성 가구주가 우위를 보인다. 태도 영역의 변수들이 금융 역량으로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의 요소이기 때문에 음의 값을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표 4-3〉의 결과는 〈표 3-3〉과 기본적으로 일치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큰 역량 단위(영역)를 기준으로 하는 성별 차이를 요약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표 4-3〉 영역별 금융 역량

영역	남성 가구주(n=547)				여성 가구주(n=195)				검정 통계량	
	평균	표준 편차	최대	최소	평균	표준 편차	최대	최소	t	(P값)
지식(f_1)	0.30	0.98	2.24	-1.84	-0.10	1.01	2.24	-1.84	4.82	(0.000)
기술(f_2)	0.06	1.00	2.62	-2.88	-0.17	0.97	2.66	-2.72	2.87	(0.004)
태도(f_3)	-0.03	0.99	3.48	-1.91	0.08	1.02	2.85	-2.16	-1.31	(0.190)
행동(f_4)	-0.04	0.99	2.69	-3.17	0.12	1.01	2.74	-3.06	-1.93	(0.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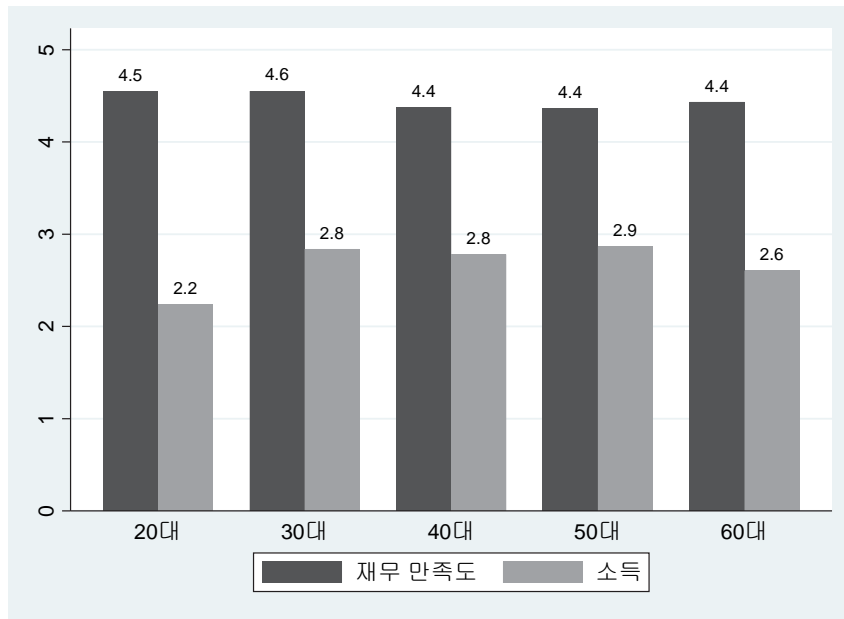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재무 만족도에 대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 재무 상황, 금융 역량 변수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 주는 회귀 분석 결과가 〈표 4-4〉에 제시되고 있다. 결정 계수로 알려진 R제곱은 0.41로 종속 변수에 대한 설명 변수들의 설명력이 그리 높지는 않다. 회귀 계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으로 보면 재무 상황과 기술 영역의 금융

역량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런 변수들이 포함되고 나면 예컨대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들만 고려했을 때의 영향력이 흡수된다. <표 3-4>에서 재무 만족도는 유의 수준 1%에서 가구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표 3-2>에서 재무 상황의 모든 변수들도 유의 수준 1%에서 가구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재무 만족도에 대하여 재무 상황이 보다 결정적인 영향 요인이라면 <표 3-4>에서 가구주 성별에 따른 재무 만족도 차이는 사실상 성별에 따라 재무 상황이 다르다는 배경이 기저에 있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표 4-4>의 회귀 분석 결과에도 나타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기할 점은 연령대별 재무 만족도와 소득에 관한 것이다. 분석 대상 가계와 가구주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별 재무 만족도와 소득의 기술 통계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그림 4-1>과 같이 연령대별로 재무 만족도 평균 수준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20대에 비해 30대만 0.1포인트 더 높을 뿐 40대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20대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3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대에 걸쳐 20대보다 균등화 소득 수준은 높다.

<표 4-4> 재무 만족도에 관한 회귀 분석 결과

변수	계수	t	(P값)	변수	계수	t	(P값)
성별(GN)				혼인 상태(MS)			
남성				기혼			
여성	-0.1087	-0.60	(0.551)	미혼	-0.1010	-0.56	(0.577)
연령대(AG)				이혼	0.2043	0.64	(0.521)
20대				사별	-0.0326	-0.04	(0.966)
30대	0.0195	0.07	(0.940)	소득(HI)	0.2849	5.51	(0.000)
40대	-0.2686	-1.03	(0.304)	순자산(NW)	0.0006	3.28	(0.001)
50대	-0.3608	-1.36	(0.175)	은퇴 준비 정도(RP)	0.3822	8.85	(0.000)
60대	-0.4218	-1.32	(0.187)	지식(f_1)	-0.0914	-1.29	(0.199)
교육 수준(ED)				기술(f_2)	0.5101	5.46	(0.000)
고등학교 이하				태도(f_3)	-0.0619	-0.76	(0.450)
전문대학	0.0992	0.30	(0.766)	행동(f_4)	0.1179	1.49	(0.138)
대학교	0.3065	1.16	(0.247)	상수(a_0)	1.7120	4.16	(0.000)
대학원 이상	-0.0335	-0.10	(0.919)	* R제곱=0.41, F(18, 723)=31.90(P값=0.000)			

(단위: 포인트, 백만 원)



〈그림 4-1〉 연령별 재무 만족도와 소득

〈표 4-4〉의 회귀 분석 결과는 다른 적절한 설명 변수들이 동시에 고려될 때 연령대가 재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음을 나타내면서 소득은 재무 만족도의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재무 만족도와 연령대만을 고려하여 분산분석을 통해 연령대별로 나누어진 집단들 간의 재무 만족도의 차별성에 대한 검정을 실시해 보면 차별성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기가 어렵다 ($P값=0.93$). 또한 1%의 유의 수준에서 연령대별로 균등화 소득의 차별성이 없다는 귀무가설도 기각하기 어렵다. 만일 연령대별로 소득의 차별성이 매우 컸다면 연령대가 실제로 재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님에도 연령대에 따라 재무 만족도가 달라지는 결과가 도출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실제 영향 요인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을 하게 되면 영향 요인 변수가 아님이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다중 회귀 분석의 유용성이기도 하다. 따라서 재무 만족도에 있어서는 주요 영향 요인 변수가 재무 상황(소득, 순자산, 은퇴 준비 정도)과 금융 역량의 기술 영역인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 역량의 다른 영역들에 비해 기술 영역이 재무 만족도에 영향 요인이 된다는 것은 아마도 재무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실용적인 측면이 강한 역량이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된다. 한편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4)식과 같이 인구통계학적 특성, 재무 만족도, 금융 역량을 설명 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표 4-5〉에 제

시되어 있다. 여기서 재무 상황 변수들을 대신하여 재무 만족도를 설명 변수로 삼은 것은 재무 상황 변수들이 결국 재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며, 만족도라는 추상적 개념의 동질성을 갖고 있어 이로 인해 실제로 회귀 모형의 설명력이 크게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표 4-5〉 삶의 만족도에 관한 회귀 분석 결과

변수	계수	t	(P값)	변수	계수	t	(P값)
성별(GN)				혼인 상태(MS)			
남성				기혼			
여성	0.3247	2.32	(0.021)	미혼	-0.4915	-3.58	(0.000)
연령대(AG)				이혼	-0.7985	-3.31	(0.001)
20대				사별	-1.1284	-2.53	(0.012)
30대	0.1800	0.82	(0.414)	재무 만족도(FS)	0.6358	18.76	(0.000)
40대	-0.1529	-0.69	(0.489)	지식(f_1)	0.0069	0.12	(0.908)
50대	-0.3929	-1.75	(0.080)	기술(f_2)	0.3289	4.24	(0.000)
60대	-0.4222	-1.62	(0.107)	태도(f_3)	0.1124	1.77	(0.078)
교육 수준(ED)				행동(f_4)	0.0255	0.43	(0.667)
고등학교 이하				상수(b_0)	3.0591	9.08	(0.000)
전문대학	-0.5428	-2.11	(0.036)	* R제곱=0.61, F(16, 725)=69.77(P값=0.000)			
대학교	-0.3555	-1.80	(0.073)				
대학원 이상	-0.1635	-0.69	(0.493)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관한 회귀 분석 결과는 재무 만족도와는 몇 가지 다른 특징들을 갖는다. 우선 재무 만족도가 중요한 영향 요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재무 만족도가 다른 변수들과 함께 갖는 설명력은 61% 정도여서 재무적인 요인 이외에도 이 회귀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무언가 중요한 영향 요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무 만족도와는 달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도 삶의 만족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혼인 상태가 가장 대표적인데 기혼에 비해서 미혼, 이혼, 사별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며 그 정도가 더욱 커짐을 알 수 있다. 재무 만족도의 경우도 다른 변수에 대한 고려 없이 혼인 상태에 따라서만 평균을 비교해 보면 기혼, 미혼, 이혼, 사별의 순서로 재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표 4-4〉의 회귀 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재무 상황 변수를 포함시키고 나면 혼인 상태 자체로서 재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는데 삶의 만족도의 경우에는 여전히 혼인 상태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 61%의 설명력에 대해 언

급했던 것처럼 혼인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어떤 비재무적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가설 검정의 유의 수준을 5%로 하면 가구주의 성별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에는 여성 가구주가 남성 가구주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조금 더 특별히 다루어져야 할 결과이다. 왜냐하면 다른 변수들에 대한 고려 없이 가구주 성별로만 삶의 만족도를 비교하면 <표 3-4>에서와 같이 평균값은 남성 가구주가 근소하게 더 높지만 성별 차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표 3-2>와 같이 재무 상황 변수들도 여성 가구주 가계가 남성 가구주 가계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준이며, <표 3-3>에서 금융 역량 또한 대체로 여성 가구주가 낮다. 그런데 <표 4-5>에서 여성 가구주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 이런 결과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의 연구로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박정민·박호준(2023)의 결과에서도 여성에 비해 남성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혼인 상태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과에 대한 설명이 선행 연구에서도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본 연구의 결과만을 가지고는 충분히 해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하지만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없더라도 연령 대별로 고령층일수록 20대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는 양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추론도 가능하다. 즉 생애 주기에 따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계의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문제는 어렵고 복잡하게 가중되기 마련이고 이를 주로 돌보고 감당해야 하는 가구주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가구주 성별은 주로 남성이 많은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여전히 남성의 가구주 역할이 보다 보편적이고 이렇게 남성에게 주어지는 가구주의 부담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수반하여 개인의 삶에 대한 기대가 실제 삶에서 충족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그리 높게 나타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그렇다면 다른 변수들에 대한 고려 없이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성별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미 남성 가구주의 경우 여성 가구주에 비해 재무 상황이 더 좋고 이에 따른 삶의 만족도 제고 효과가 남성 가구주라는 사실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남성만을 대상으로 가구주 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비교해 보더라도 가구주 여부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구주인 남성과 가구원인 남성 간의 재무 상황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가구주인 남성이 가구원인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재무 상황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성 가구주가 과중한 부담감을 갖는다는 것을 여성 가구주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여성이 가구주에 대한 부담감을 덜 갖고 나름대로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서와 심리적인 차이에 해당할 것이므로 추후 이런 관점에서 보다 세밀한 관찰과 분석을 해본다면 추론보다는 더 확실한 증거에 기반을 둔 결과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일반 가계와 가구주를 대상으로 금융 역량의 네 가지 영역 모두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금융 역량이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재무 상황 변수들과 함께 재무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였다. 우선 금융 역량은 지식, 기술, 태도, 행동의 네 가지 영역들 가운데 지식과 기술에서 남성 가구주와 여성 가구주 간의 차이가 확인되었다(유의 수준 1%). 즉 두 영역 모두 남성 가구주의 금융 역량이 여성 가구주보다 높았다. 그런데 특히 기술 영역의 금융 역량은 재무 만족도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그 중요성이 다른 영역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금융 교육은 모든 영역에서의 역량이 균형 있게 향상되도록 해야 하겠지만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인지를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와 같은 결과가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특별한 역량이 단기간 내에 갖춰지기보다는 오랜 시간의 경험을 통해 형성될 수 있기에 가계에서 금융에 관한 의사 결정을 주로 담당하게 되는 가구주 역할의 중요성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간접적으로 밝혀졌듯이 여전히 우리나라의 사회적 통념상 남성이 주로 가구주의 역할을 하고 있어 만일 이혼이나 사별 후에 가구주가 되는 여성의 경우 가계의 금융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금융 교육과 개인 재무의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계 구성원들 간에 가계 재무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며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직접 금융 의사 결정을 해보는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재무 만족도에 관해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소득, 순자산, 은퇴 준비 정도와 같은 재무 상황 변수들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것도 재무 만족도를 모두 설명하는 데는 부족하여 무언가 다른 잠재적 요인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나 본 연구에서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무 상황이 재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지배적이다 보니 남성 가구주 가계와 여성

가구주 가계 간의 재무 상황의 차이가 결국 재무 만족도의 차이로도 이어지고 있다. 평균적으로 보면 가계의 소득, 순자산, 은퇴 준비 정도에 있어서 여성 가구주 가계가 모두 낮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 역량이 재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 영역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영역이 재무 만족도의 영향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금융 역량의 여러 영역들 중에서도 실제 가계가 당면하는 금융 의사 결정과 재무 관리를 비롯하여 여러 재무 문제 해결 등에 가장 실용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 웰빙은 재무 만족도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우선 재무 만족도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재무 상황의 개선과 기술 영역의 금융 역량 강화가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도에는 재무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인의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재무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명시적으로 비재무적 영향 요인 변수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 예컨대 혼인 상태에 따라서도 평균적으로 기혼 가구주의 만족도가 크며, 5%의 유의 수준에서 여성 가구주가 남성 가구주보다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갖는다는 점은 이와 연관된 비재무적 요인의 영향력을 암시해 주고 있다. 어떤 가계가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구하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구주가 그 배우자와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하는 데서 비롯되는 효율성이나 관계의 증진이 또 다른 삶의 만족을 가져다주는 요인일 수 있으며, 생애 주기에 따라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가중되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남성 가구주에게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술 영역의 금융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역량의 네 가지 영역 중에서도 가장 실용적인 측면이 강하고 이러한 역량은 재무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의 비재무적인 문제 해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결과이다. 이렇듯 기술적 영역의 금융 역량이 재무 만족도와 아울러 그보다 더 포괄적인 삶의 만족도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금융 교육에서는 이 역량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에 걸맞은 정도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 물론 요인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금융 역량의 네 가지 영역들이 매우 특징적이어서 상호 보완을 이루며 균형 있게 향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즉 어떤 한 영역의 역량이 뛰어나다고 해서 다른 영역의 역량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 교육의 방향성과 세부적인 방법을 설계함에 있어 기술적 역량의 중요성에 더욱 신중한 고려가 필

요하다. 이 역량의 향상이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고 주로 실천적인 경험 학습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초 자료와 변수들이 금융 역량을 측정하고 재무 만족도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 요인을 조사하는 데 전적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주로 재무 변수들만을 고려하여 한계가 있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비재무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변수들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몇 가지 추론들의 타당성을 확인해 보고 재무 만족도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의 영향 요인들에 대하여는 아직 맞추어지지 않은 퍼즐 조각들이 채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2022 연차보고서』, 2023.
- 김인숙, “우리나라 소비자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조사보고서』 09-11, 2009.
- 박정민 · 박호준, “한국사회 삶의 만족도의 연령-기간-코호트 효과 분석 - 2006년 -2021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5(2), 2023, 193-216.
- 정운영 · 이진호 · 황삼진, “우리나라 금융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연구』 10(2), 2020, 27-57.
- 최철, “금융상품 정보 제공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8(4), 2012, 93-118.
- 최현자 · 이지영, “우리나라 청소년의 금융 이해력: 지출과 신용이해력을 중심으로,” 『신용카드학회지』 2(1), 2008, 65-86.
- 최현자 · 조혜진, “금융 교육과 금융거래경험이 대학생의 금융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2(4), 2011, 55-75.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3.29.), 2022 전 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 결과.
- Atkinson, A. and Messy, F-A., “Measuring financial literacy: results of the OECD/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 (INFE) pilot study,” *OECD Working Papers on Finance,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15, 2012.
- CFPB, *Financial well-being: The goal of financial education*, 2015.
- Dillon, W. R. and Goldstein, M., *Multivariate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84.
- Lusardi, A. and Mitchell, O. S., “Financial literacy around the world: an overview,” *Journal of Pension Economics and Finance* 10(4), 2011, 497-508.
- OECD, *G20/OECD High-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2022.
- OECD/INFE, *Measuring Financial Literacy: Questionnaire and Guidance Notes for Conducting an Internationally Comparable Survey of Financial Literacy*, 2011.
- OECD/INFE, *OECD/INFE Toolkit to Measure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Inclusion: Guidance, Core Questionnaire and Supplementary Questions*, 2013.
- OECD/INFE, *OECD/INFE 2020 International Survey of Adult Financial Literacy*,

2020.

World Bank, *Financial Capability Surveys Around the World: Why Financial Capability Is Important and How Surveys Can Help*, 2013.

- 논문접수일: 2023.11.05.
- 수정논문접수일: 2023.12.05.
- 게재확정일: 2023.12.10.

〈부 록〉

금융 역량 측정 변수

구분	설문 내용	α 계수
지식	Q1 연 2%의 이자율이 보장된 1년 만기 정기예금에 100만 원을 납입 후 5년이 경과했을 때 이 정기예금에 적립된 돈(원금과 이자)은 얼마입니까? (만기에 돈을 찾지 않을 경우 원리금은 연 2%의 이자율로 재예치) ①110만 원 초과, ②110만 원, ③110만 원 미만, ④주어진 정보로는 알 수 없음, ⑤잘 모름	0.42
	Q2 물가상승률은 연 2%이며 정기예금 계좌의 이자율은 연 1%일 때 1년 후 이 정기예금으로 모은 돈(원금과 이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양)는 현재와 비교하여 어떻게 될까요? ①증가한다, ②똑같다, ③줄어든다, ④잘 모름	
	Q3 이자율이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은? ①상승한다, ②하락한다, ③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④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무관하다, ⑤잘 모름	
	Q4 다음 문장의 참 또는 거짓은? 「대출 금리를 비롯해 다른 조건이 같다면, 만기가 30년인 주택담보대출보다 15년 인 상품이 월 상환 금액은 더 크지만 총 이자 금액은 더 적다.」 ①참, ②거짓, ③잘 모름	
	Q5 다음 문장의 참 또는 거짓은?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주식 하나에 투자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더 안전하다.」 ①참, ②거짓, ③잘 모름	
기술	FT 금융 상품과 관련된 서류(예: 예·적금 등 각종 금융 상품 약관, 설명서 등)를 읽고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습니까? (0~10점)	0.83
	AS 일상생활에서 숫자(산수)를 활용하는 데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습니까? (0~10점)	
	FD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습니까? (0~10점)	
	MM 전반적인 돈 관리와 그 역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습니까? (0~10점)	
	CM 돈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습니까? (0~10점)	
태도	EC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데도 물건을 사는 경향이 있다는 데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0~10점)	0.67
	IP 자주 충동구매를 한다는 데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0~10점)	
	OF 내일의 돈 문제는 내일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데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0~10점)	
행동	BM 돈이 부족한 시기를 대비해 지출 계획을 세운다는 데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0~10점)	0.67
	SP 월간 또는 주간 지출 계획(예산)은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0~10점) * 지출 계획이 없으면 0점, 매우 구체적이면 10점	
	FP 재무 목표 성취를 위한 재무 계획은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0~10점) * 재무 목표나 계획이 없으면 0점, 매우 구체적이면 10점	

Financial Capability and Well-being of Korean Financial Consumers

Choi, Chul*

< Abstract >

Financial education has become more important in that it is essential for proactiv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trengthening financial capability promotes informed choices and market discipline as well. Financial capability is defined as a combination of specific elements belonging to knowledge, skills, attitude, and behavior.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financial capability and financial well-being of Korean financial consumers in terms of financial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influence of financial variables such as income, net worth, and retirement preparedness is dominant on financial satisfaction. Financial skills are found to have a positive contribution not only to financial satisfaction but also to life satisfaction. Thus its importance needs to be relatively more emphasized. Since a better financial situat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financial satisfaction, differences in financial situation between male and female household heads lead to their different financial satisfaction levels. This is because, on average, female-headed households are lower in household income, net worth, and retirement preparedness. It underlies the importance of financial skills that they are very practical in dealing with actual financial matters.

Generally speaking, life satisfaction is influenced not only by financial factors but also by non-financial factors. Although financial skills have a positive impact on financial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they have not been highlighted commensurately so far. Therefore, this particular dimension of financial capability should be considered and reflected in designing detailed methods and tools for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onsumer Economic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hoichul@sookmyung.ac.kr

financial education in the future. It is indeed so in view of the fact that this capability dimension can be achieved primarily through practical experiential learning over a long period of time. Lastly, in follow-up research, a more comprehensive review of financial well-being needs to be done using a wider range of variables, including non-financial areas.

Key Words: financial consumer, financial capability, financial literacy, financial well-being, financial education